

- 주요 뉴스: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상승,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추측 강화
 - 미국 6월 생산자물가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9월 금리인하 기대 지속
 - 중국의 기록적 무역흑자, 서방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
 - ECB, 미국 대선 리스크 등으로 금리 인하에 신중할 소지
- 국제금융시장: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속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영향
 - 주가 상승[+0.55%], 달러화 하락[-0.34%], 금리 하락[-3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9월 금리인하 기대, 기술주 강세 등으로 0.55%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연준 파벗 기대에 따른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으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, 엔화 강세 등으로 0.34% 하락
유로화는 0.36% 상승, 엔화는 0.64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며 3bp 하락
독일 및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4bp, 4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373.3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5.8원, 0% 보합), 한국 CDS 보합

		7/12일	7/11일	전일대비			7/12일	7/1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615.4	5,584.5	+0.55%	국채 금리 10y	미국	4.18%	4.21%	-3bp
	유럽	524.08	519.51	+0.88%		독일	2.5%	2.46%	+4bp
	중국	2,971	2,970	+0.03%		영국	4.11%	4.07%	+4bp
	일본	41,191	42,224	-2.45%	CDS 5y	한국	35.3	35.3	+0bp
	한국	2,857.0	2,891.4	-1.19%		중국	56.2	56.1	+0bp
환율	달러지수	104.1	104.4	-0.34%	위험 지표	EMBI+	-	395.0	-
	유로화	1.0907	1.0868	+0.36%		VIX	12.5	12.9	-3.56%
	엔화	157.83	158.84	+0.64%		WTI유	82.2	82.6	-0.50%
	위안화	7.2504	7.2579	+0.10%	원자재	구리	459.9	450.9	+2.00%
	원화	1,375.80	1,372.80	-0.22%		금	2,411.4	2,415.5	-0.1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ì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상승,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추측 강화

- 달러 대비 엔화가 이틀 연속 상승한 가운데, 시장에서는 일본 외환당국이 시장에 실개입한 것으로 추정. Nomura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개입 없이 엔화가 갑작스럽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
- 일본은행(BoJ) 데이터에 따르면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 11일 3.5조엔(약 224억달러)이 투입되었을 가능성. 칸다 마사토 재무관은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으나, 필요시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
- 스즈키 순이치 재무장관도 현지 언론이 보도한 일본은행의 유로화 레이트 체크(rate check) 여부나 달러-엔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, 외환시장의 급격한 일방향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
- 일각에서는 시장 개입이 엔화 약세 흐름을 강제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제기. NLI 연구소의 Tsuyoshi Ueno는 “환율의 추세는 펀더멘탈에 달려있으며 시장 개입으로 바꿀 수 없다”는 견해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6월 생산자물가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9월 금리인하 기대 지속

- 6월 PPI는 전년동월 대비 2.6% 증가(5월 2.4%)하며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. 다만 식품, 에너지 및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는 5월 3.3%에서 6월 3.1%로 둔화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완화되는 조짐.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도 지속
- 경제학자들은 목요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(CPI)의 완만한 수치를 고려할 때 동월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지수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. BofA는 지난 두 달 동안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
- Citi의 경우, 기업의 가격전가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투입비용 상승은 가격 하락을 더디게 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. 경제학자 및 금융시장은 9월 금리 인하에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12월 추가 인하도 예상

■ 중국의 기록적 무역 흑자, 서방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

- 6월 중국 무역흑자가 수출 급증(전년동기 대비 +8.6%) 및 수입 감소(-2.3%)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인 99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서방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위험
-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Eric Zhu는 중국의 2분기 GDP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평가. 다만 견고한 대외수요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는 내수 부진을 시사하는 바 5%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부연
- Pinpoint Asset Management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Zhiwei Zhang는 수출 호조의 지속가능성이 하반기 주요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무역갈등 심화 및 美 경기 둔화를 경계

■ ECB, 미국 대선 리스크 등으로 금리 인하에 신중할 소지

- 블룸버그 서베이 응답자들은 ECB의 다음 금리인하 시점은 9월로 예상.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유로존 물가가 2%로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CB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접근을 취할 소지

■ 영란은행(BoE), 정책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효과적이었다고 발표

- 영란은행은 분기 보고서에서 '21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(0.1% → 5.25%)이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를 둔화시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. '23년 영국의 총실질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 증가율은 둔화되었다는 점이 전통적인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증거라고 설명

■ 미국 대형은행 2분기 실적 발표. 투자은행 수입은 확대, 주가는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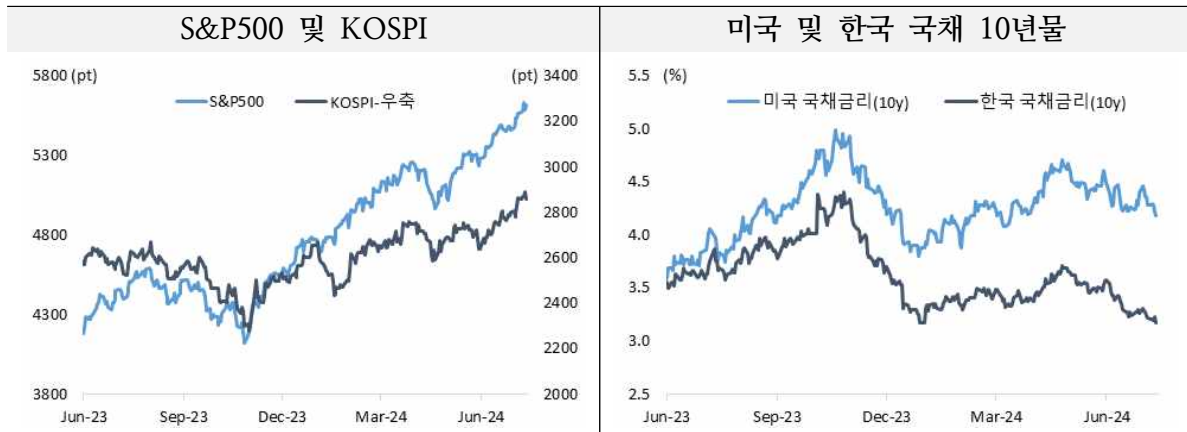
- 미국 대형은행들은 활발한 투자은행 활동 및 거래시장 회복으로 투자은행 부문의 수입이 크게 개선(전년동기 대비 Citi +60%, JPM +46%, Wells Fargo +38%)되었으나 주가는 하락(Citi -1.8%, JPM -1.2%, Wells Fargo -6%)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2분기 GDP, 6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(7/15일)
- 미국 6월 소매판매(7/16일), 영국 6월 물가상승률(7/17일)
- ECB 7월 통화정책회의(7/18일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56, E-mail wjhwang@kcif.or.kr